

韓國(朝鮮)齒科界 變遷物産

大澤義誠

- ◇…… 本文은 大韓齒科醫師研究會誌 第1卷(1960年度)에 掲載된 바 있는……◇
- ◇……內容을 轉載하는 것입니다. 大澤義誠氏(日人, 1914年 龍山 鐵道病院……◇
- ◇……勤務, 聯合齒科醫師會 會長 歷任, 終戰前後死亡)가 寄稿한 本文은 많……◇
- ◇……은 參考가 될것으로 믿는다. ……………(編輯者 註)……◇

- ◇…… 朝鮮 齒科界도 最近 눈부실 만큼 意外의 進展相을 보이게 되었는데 今日……◇
- ◇……의 隆盛을 이루기까지 어떤 經過를 取해 왔는가 함을 檢討해 보는 일도 虛……◇
- ◇……事는 아니라 여기며 惡筆임에도 不拘하고 本誌(譯者 註=朝鮮之齒界)가 創……◇
- ◇……刊되는 機會에 써 보기로 했다. ……………◇
- ◇…… 먼저 밝혀 들 點은 筆者는 大正三年에 朝鮮에 가서 그 以前의 일에 對해……◇
- ◇……서 알고저 材料 수집에 힘 썼으나 容易하게 되질 않았기에 할수 없이 概要……◇
- ◇……만을 摘記하기로 하며 後日 機會를 봐서 補遺코자 한다. 다음에는 于先 京……◇
- ◇……城을 中心으로 해서 記述하고 漸次 地方에까지 言及코자 한다. ……………◇

搖籃時代

朝鮮에 있어서의 現在의 齒科醫學은 云謂할바 없이 日本에서 온 것이다. 따라서 若干 母國에 있어서의 齒科發達 初期의 일을 쓰고자 한다.

말를 江戸時代의 禁中에라 御齒醫師라는데 있고 幕府에는 口中科醫師라는데 있었다. 그런데 이에 關한 仔細한 것은 그만두고 所謂 西洋齒科醫術이라는 것은 明治七年에 米國人 齒科醫 에리웃드氏로부터 小幡英之助氏가 修得하고 처음으로 東京에서 洋式齒科醫術로 開業한데 始作된다. 이어 明治十一年 高山紀齋氏가 米國留學에서 歸國해서 開業했다. 이런 事實은 齒科醫術의 籃觔이다.

그러던 朝鮮에서도 어느 때쯤부터 있었을가. 云謂할 바도 없이 齒科疾患에 罹患되는 사람은 매우 옛부터 있었을터이며 또 그것을 治療하는 사람도 있었으리라 생각 되는 데 何等 확실한 史實도 없는 듯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 點은 後日로 미루고 今日的 齒科醫術의 朝鮮에 있어서의 端緒는 大體 어느 時代부터인가 하는 點으로부터 쓰기로 한다.

이것은 少年時代부터 仁川에 와서 醫師 點城氏 밑에서 醫師를 修業하고 있었던 野田應治氏가 뜻을 가지고서 日本으로 齒科醫學을 배우러 가서 明治二十六年 六月三十日 歸來하여 仁川에서 開業한 것에

始作된다. 當時 京城은 仁川보다도 日本人의 人口가 적었었다. 野田氏는 日本에 가서 齒科를 勉學한 學堂한 齒科醫이며 또한 當時에는 仁川보다도 朝鮮으로써는 唯一한 齒科醫이 있었을 것이 그의 治療와 施術을 받는 患者는 少數이었기에 氏는 仁川을 本據로하면서 京城으로 出張하기도 하고 또 南鮮方面에도 出張했던 것이다. 當時 朝鮮의 日本人 多數居住地였던 仁川에서도 唯一한 齒科醫의 生計를 計했다는 것이다.

그後 數年 되지 않아 野田氏 京城으로 移住해서 本據지로 삼으면서 仁川에는 出張했다는 것이 이때쯤 日本에서 田添, 瓜生兩齒

醫師가 京城, 仁川等に 왔으나 兩氏는 모두 開業可望은 없다고 해서 다시 歸國했었다 한다. 그래서 野田氏의 齒科醫 獨占時代는 約 十年間 持續되었었다. (野田氏는 昨春 歸國해서 最近에 作故한 사람이나 朝鮮齒科界의 開拓者라고 할 분이니 同氏의 業績에 關해서는 後日에 다시 쓰려고 한다) 이 時代에는 野田氏가 義齒을 만들어서 機能을 回復시킨다는 點을 患者에게 說明하는데 아주 苦心했다는 말도 있다. 이것을 가지고서도 當時의 齒科衛生思想은 極히 幼稚하여 지금으로써는 想像조차도 할 수 없는 程度이었던 것이다.

이 時代는 全히 齒科衛生에 理解가 없는 大衆을 相對으로 하고 野田氏는 孤軍奮鬪한 것 같다. 다음 明治三十七년에 京城 日本人居留民團 團立漢城病院(現今의 明治町 公設市場 場所)에 齒科醫로서 重城養二氏가 來住했다. 이것이 病院에 齒科部가 設置된 嚆矢이다. 重城氏는 一年餘에 歸國하고 그 後任으로 飯塚徹氏가 來任했다. 同氏도 一年餘에 同病院을 辭任하고 東京帝大 醫科石原教授 밑에서 齒科를 研究하고서 다시 來鮮하여 南山町三丁目에서 開業했는데 이것은 明治四十年二月이다.

이보다 앞서 陸軍에 當時는 韓國 駐劄司令部附로 明治三十八年九月에 東京으로부터 檜崎東陽氏가 來任했다. 이것이 我國의 陸軍에 齒科醫를 둔 最初이다. 檜崎氏는 明治三十九年六月 南山町三丁目에서 開業했다. 이것으로 野田氏 檜崎氏 飯塚氏 三氏의 開業齒科醫가 있게 되고 이들 三氏의 昇立時代는 數年間 繼續했다.

다음 明治四十三年 앞서 伊藤公의 總監政治로서 創設된 大韓醫院은 日韓合併과 함께 總督府醫院(지금의 京城帝大附屬病院의 前身)이

라 改稱되고 外科의 一部로서 齒科診療가 開通되고 渡邊定亮氏의 來任을 보았다. 이것과 前後해서 龍山에 同仁會의 同仁醫院에도 齒科部의 創設을 보고 前記 檜崎氏의 後任으로 온 注連內堅石氏의 出張下에 佐野史郎氏가 勤務했다. 이 同仁醫院은 곧 龍山鐵道病院이 되고 大正三年 二月에 大澤義誠氏가 主任으로 왔다. (大澤氏는 後에 總督府病院으로 轉任) 總督府病院 齒科部의 初任 渡邊氏가 轉任하고서 東京齒科 出身의 安永鹿三郎氏, 木下芳夫氏를 거쳐 大正三年 三月에 柳樂達見氏가 來任해서 外科로부터 齒科를 獨立시킨 것은 大正五年이다.

한편 開業齒科醫家は 明治四十二年頃 注連內堅石氏가 陸軍을 辭任하고서 開業하였을 때 日本에서 中村安子라는 婦人齒科醫가 永樂町에서 開業해서 當時에는 女子齒科醫로서 大端히 珍奇視 되었던 것이다.

京城齒科醫學會가 처음으로 組織된 것도 이때 쯤이다. 이 齒科醫學會에 關해서는 後日 다시 執筆하겠으니 이쯤하고, 다음 잊어선 안될 것이 明治四十年을 前後해서 主要都市에는 入齒營業者의 簇生을 본 것으로 그 數도 齒科醫師의 數倍이었다. (이 入齒爲業者에 關해서는 後日 다시 쓰고자 한다) 其他 總督政治로 되어서 各道에 慈惠醫院(지금의 道立病院 前身)이 設立되고 그 過半數에 齒科部가 있고 그 主任者는 거의 모두가 無資格으로 外科의 一部로서 診療하고 있으며 이로서 明治四十四年 大邱 慈惠病院 齒科에 東京齒科出身 金子英志氏가 來住했는데 當時 官立醫院인 慈惠醫院의 齒科部에는 唯一한 有資格者이었다.

以上과 같이 朝鮮에 있어서의 齒科界는 그 搖籃末期에 있어서도 雜

然混沌한 形便으로서 官立醫院에 있어서까지도 無資格者가 公然하게 齒科診療를 하고 入齒營業者는 一片의 願書로써 許可되며 그 繁殖도 放任되는 狀態이었다.

그리고 醫事衛生에 關한 法規도 불만한 것이 없고 비로서 大正二年 가을에 現行 朝鮮齒科醫師規則(日本の 齒科醫師法과 같음) 及 入齒營業者規則의 發布를 보고 다음해 三年一月부터 同法令이 實施되었다. 다음 日本과 朝鮮의 齒科界 發達經路를 比較해서 顯著한 差違가 있는 것은 朝鮮에서는 이 搖籃時代에 이미 다음과 같은 制度가 있었다. 卽

1. 公的 醫療機關(卽 官公立病院)에 比較的 빨리 齒科部 設置를 본 것이다. 日本에서는 帝大附屬病院 其他의 官公立病院에 齒科가 設置된 것이 明治末期부터 大正에 걸쳐서이다.

2. 傍係일 入齒營業者 許可가 無制限으로 그 取締規則이 寬大하여 그들로 하여금 自由롭게 齒科診療를 시킨 것이다. (日本에서는 明治十七年 內務省에 齒科醫籍을 醫籍으로부터 分離시키고 同時에 醫術開業試驗을 施行하고 그後 入齒營業者에게 新許可를 하지 않았다)

以上 두가지는 正系일 私的醫療機關(卽 開業齒科醫家)의 發展에 顯著하게 阻害한 것 같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事實이 雄辯으로 立證하고 있다. 朝鮮에서 齒科醫 養成機關이 設立된 것은 大正十年以後인데 明治 末期로부터 大正에 걸쳐서 日本으로부터 朝鮮에서 開業코자 왔던가 或은 朝鮮에서 官立病院에 奉職한 者로서 京城 其他의 都市에서 開業한 者가 적지 않았으나 그들의 大部分은 官民의 齒科醫學에 對한 無理解에 不滿을 느끼고 日本으로 歸國하는 者가 많았으며 그로 인하여 大正三年頃에

는 朝鮮의 齒科醫師數가 官公立奉職者를 包含해도 三十名이 되지 못하고 七, 八年을 經過해도 그 倍數에 達하지 못한 狀을 보아서도 짐작할 수 있었다. (暫間 日本과 朝鮮을 比較 記述하였으나 이것은 반드시 이글의 主意도 아님으로 이쯤 하고서 다음회는 齒科醫師規則의 發布부터 그 以後에 생긴 일들에 關해 쓰기로 하고 于先 搖籃時代의 記를 끝맺는다.

1. 野田氏의 個人成分

氏는 明治四年十一月二十四日 北九州의 一角이 大分縣 東國東郡 伊美村의 荒卷十郎治 二男으로 出生하여 그 幼時에 同村의 野田春泉氏 養子가 되었다. 野田塚나 舊日出藩의 士族이며 代代로 醫業을 했다. 氏도 亦是 醫師가 되려고 明治二十年 十六歲時에 朝鮮에 와서 仁川公立病院長 古城管堂氏 밑에서 修學을 始作했는데 當時에는 齒科醫가 없고 齒病患者의 疼痛이 甚한 狀을 目睹하게 됨에 齒科醫師를 志望하고 明治二十四年 東京에 遊學하여 當時 唯一한 齒科醫學校이던 高山齒科醫學院에 入學했다. 卒業하자 同二十六年 五月 內務省 齒科醫術 開業試驗에 應試하여 合格하고 同六月三十日 內務大臣부터 免許狀을 發했다.

2. 齒科醫院開業

日本에 遊學하고서 훌륭한 齒科醫가 되고 뒤어나 當時 朝鮮에 있어 揚最初의 齒科醫이기도 한 意氣揚進한 青年齒科醫의 氏가 歸來 直逕에 仁川 本町에 開業한 그 때 이의 仁川 在住日本人數는 約千名 였다. 그리고 口腔衛生 思想이란 마위의 것을 全然 없는 幼稚한 大衆은 그가 修得한 齒科醫術을 받는 者가 적고 新進齒科醫도 開散했었으니 亦是 漢城은 首都이니 希望을 갖고 翌年 二十七年四月에 漢城에

移轉 開業했다. 그러나 當時는 日本 居留民이 仁川보다 적고 約500名에 不過했다. 그러나 首都이니만큼 朝鮮人이나 外國人의 受療者도 仁川보다 많았다. 氏가 京城에 온 最初에는 南大門通 바로 지금 大阪朝日新聞 京城支局(譯者註=미우관百貨店 바로 南側 隣接噴汀)이 있는 곳에서 開業했는데 그 後에 南大門通은 거의 朝鮮人 家屋뿐이고 氏의 醫院이 唯一한 二層建物이었음으로 周圍의 朝鮮人들이 내러다 보이는 것이 싫어해서 그랬는지 周圍에서 投石 當하는 등의 일도 있었기에 거기 있을 수 없이 數個月로 해서 泥岬(진고개)=現今의 本町一丁目 레스트란 銀水=로 移轉했다.

開業 數年間은 汽車도 없는 길을 徒步로 隨行을 거느리고 南鮮 方面으로 메대 出張했던 것이다. 仁川에도 漢江의 船便에 依하든가 또는 말(馬)을 타고서 거의 하루 걸려서 往診했던 것이다. 그리고 當時의 患者는 日本人, 朝鮮人, 外國人이 있던 것은 말할바도 없으나 特히 拔齒患者가 많았던 것이다. 다음에 特筆할 것은 그 時代의 朝鮮人 患者(아마도 當時의 朝鮮 上流社會이 있을 것이다.)는 口腔內에 金을 使用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義齒의 鉤까지라 해도 金을 希望하지 않아 할수 없을 때에는 白金을 鉤로 使用했다는 것이다. 또 義齒을 裝着한 사람들도 될수 있는데로 他人에게 感知하지 않게 되길 希望하였기에 自齒가 義齒인 것을 決코 他人에게 말하는 일이 없었다. 따라서 齒科醫術의 普乃 宣傳에는 매우 不利했었다 한다.

3. 當時의 口腔衛生狀態

野田氏가 開業한 明治二十六年頃의 患者 口腔衛生 狀態라고 하면 오늘날로써는 全然 想像도 되지 않는 狀態이었다. 即 日本人에게 있어서

도 아침 一回의 口腔清掃라 해도 齒刷牙를 使用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或間 使用하는 사람이 있어도 「花王散」 或은 「하고다齒磨」 또는 食鹽(多數)을 使用할 程度이었다. 그리고 齒牙의 狀態도 매우 良好해서 當時 野田齒科醫院의 門을 찾는 患者도 口腔內에 二, 三의 齒牙以上 齲齒을 갖는 사람은 絶無에 가까울 程度이었다.

朝鮮人에 있어선 古來 習慣의 으로 齒牙를 닦는 까닭에 齲齒을 갖는 사람이 極히 적고 따라서 一般的으로 齒痛患者로서 治療를 받는 사람이 드물고 大體가 善良한 口腔齒牙의 所有者이었다. 이것은 中流 以下의 사람이라도 食後에는 잘 嗽하는 좋은 習慣이 있었던 탓이다. 또 一般的으로 朝鮮人은 齒牙를 닦는데 鹽을 가지고 했다는 말 이다.

明治二十九年 野田氏가 朝鮮親衛隊의 兵卒募集에 있어 體格檢査醫員으로 從事했을 때 그 口腔檢査를 施行했는데 그 百名當 齲齒을 갖은 사람은 단지 十七名, 그리고 一人 齲齒數 二十平均齒에 未達하고(譯者註=一人齲齒數 二十平均齒에 達하고=라 하는 말은 誤譯이 아님.) 一~二齒 缺如된 사람 十一名, 梅毒에 罹患되어 異狀이던 사람은 三名이었다는 것, 檢査를 받는 사람 年齡은 十八歲乃至 三十歲의 壯者 이 었다는 것이다.

以上을 가지고서 數十年前 當時의 大衆의 口腔狀態가 얼마나 原治의 에 가까웠던가, 다시 말해서 얼마나 健全한 齒牙를 具有하고 있던가를 想像할 수가 있다.

<다음호에 계속>